

# ‘무릎 부상’ 나상호 아쉬운 하차... 이승우 대타 합류

오른쪽 인대 손상... 훈련 복귀 했지만 시합 출전 불가 판단

## 아시아컵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아컵에서 5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벤투호에서 두 번째 안타까운 이별식이 열렸다. 떠나보내는 파울루 벤투 감독도, 함께 땀을 흘려온 태극전사들도 아쉬움에 젖었다.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대표팀 숙소에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벤투 감독을 포함한 코칭스태프와 태극전사들이 모여 조촐한 환송회 자리가 열렸다. 오른쪽 무릎 내측 인대 염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표팀을 떠나야 하는 나상호(23·광주)를 위로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2 득점왕(16골)이자 지난해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리스트인 나상호는 지난해 11월 벤투 감독의 호출을 받고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나상호는 한발 더 나아가 포지션 경쟁자인 문선민(인천)과 이승우(베르디)를 따돌리고 아시아컵 최종 명단 23명에 이름을 올리면서 성공 가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달 울산 전지훈련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나선 나상호는 지난달 23일 UAE 아부다비 전훈 캠프에서도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쳤다. 꽃길을 걷던 나상호에게 불운이 엄습했다.

나상호는 지난달 28일 팀 훈련 도중 슈팅을 하다가 오른쪽 무릎 내측 인대를 다쳐 재활조로 빠져야 했다. 이후 재활조에서 꾸준히 부상 치료에 나선 나상호는 마침내 지난 5일 팀 훈련에 복귀, 아시아컵 출전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벤투 감독의 생각은 달랐다. 부상 상황을 종합한 결과, 나상호가 경기에 나설 몸 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벤투 감독은 중대한 결정을 했다. 나상호 대신 같은 포지션이자 최근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승우로 교체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아시아컵에서는 팀 첫 경기 킥오프 6시간까지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벤투 감독은 6일 오전 나상호에게 교체 소식을 알렸고, 나상호는 아쉬움 속에 코칭스태프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다.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은 점심 식사 시간에 모여 나상호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아직 23살의 젊은 나이인 나상호에게는 시련이었지만 이번 훈련은 가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보약이었다.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는 나상호의 유니폼에 전원 사인을 남겼다. 지금까지 훈련했던 순간들을 잊지 말자는 마음의 표시였다. 나상호는 한국 시간으로 7일 새벽 이진현(포항)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벤투호와 작별했다. /연합뉴스



## 요르단 ‘그라운드의 반란’

조별리그 1차전 디펜딩 챔피언 호주에 1-0 승... ‘대패’ 태국 감독 경질

요르단이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아컵에서 대회 2연패를 노리는 호주를 잡는 ‘그라운드 반란’을 일으켰다.

요르단은 6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알 아인의 하자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B조 1차전에서 전반 26분에 터진 아나스바니 야신의 선제 헤딩골에 힘입어 지난 2015년 대회 챔피언 호주를 1-0으로 물리쳤다.

4년 전 호주 대회 때 본선 조별리그 문턱을 넘지 못했던 요르단은 우승 후보인 호주를 잡는 이변을 연출하며 16강 진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이 네 번째 본선 무대인 요르단은 2004년과 2011년 대회 때 8강 진출이 아시아컵 최고 성적이었다.

반면 자국에서 열린 2015년 대회 때 우승컵을 차지했던 호주는 첫 경기에서 요르단 돌풍의 제물이 됐다.

이어 열린 A조 1차전에서는 FIFA 랭킹 97위 인도네시아가 수필 체트리외의 멀티 골을 앞세워 태국(118위)을 4-1로 꺾었다.

인도는 전반 27분 상대 선수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으며 선제골을 기록했고, 1-1로 맞

선 후반 경기 시작 1분 만에 두 번째 골을 뽑아내는 등 4-1승리를 기록했다.

팔레스타인은 10명이 싸우는 수적 열세에도 값진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대회 출전 사상 첫 승점을 획득했다.

팔레스타인은 시리아와 B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후반 24분 모함메드 살레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지만, 0-0으로 비기며 아시아컵 출전 사상 첫 승점을 기록했다.

2015년 호주 대회 때 아시아컵 본선 무대를 처음 밟은 팔레스타인은 당시 3전 전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팔레스타인과 시리아가 비긴 데다 3전 전승이 예상됐던 호주가 요르단에 털미를 잡히면서 B조는 16강 진출 경쟁이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게 됐다.

한편 첫 경기에서 대패를 당한 태국이 감독 경질이라는 강수를 뒀다.

태국축구협회는 7일 밀로반 라예바치(65·세르비아) 대표팀 감독과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태국은 시리샤 요드야드타이 대행 체제로 남은 대회를 치른다. /연합뉴스

## 여자 축구 대표팀 소집 中 4개국 친선대회 출격

오는 6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2019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을 준비하는 여자축구 대표팀이 10일 소집돼 실전 감각 끌어올리기에 나선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10일 오후 2시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모여 다음 날 오전 4개국 친선대회가 열리는 중국으로 떠난다.

10일 소집에는 대상 선수 26명 가운데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에서 뛰는 에이스 지소연(헬시 레디스)과 지소연과 같은 WSL 무대에 진출한 조소현(웨스트햄)을 제외한 24명이 참가한다.

지소연과 조소현은 4개국 대회가 열리는 중국 메이저우에서 합류할 예정이다.

대표팀은 4개국 대회에서 여자 월드컵을 대비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한편 조직력 다지기에 역점을 둔다.

국내 여자실업축구 WK리그의 장승기(인천 현대제철)와 일본 실업축구 리그에서 뛰는 이민아(고베 아이나) 등 선수들은 지난 시즌이 끝나고 경기에 뛰지 않아 실전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4개국 대회에서 17일 루마니아와 맞붙고, 이어 20일에는 중국-나이지리아 승자 또는 패자와 결승전 또는 3-4위전을 치른다.

여자 대표팀은 4개국 대회가 끝나고 해산했다가 다음 달 호주와 뉴질랜드, 아르헨티나가 참가하는 호주 4개국 대회 출전을 위해 다시 모인다. /연합뉴스

## 루니 ‘만취 소동’

연말 美 공항서 소란 일으켜 체포

잉글랜드 축구의 대표 스타였던 웨인 루니(34·DC 유나이티드)가 지난해 연말 술에 취해 일으킨 소란으로 미국 공항에서 체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P통신과 ESPN, 스카이스포츠 등 외신은 당국 발표를 인용해 루니가 지난해 12월 16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덜레스 공항에서 공공장소 주취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공항 출입구의 경보를 울리게 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경범죄 벌금 25달러(약 2만8천 원)와 소송 비용 91달러를 냈다.

루니 측 대변인은 프로모션 참석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이것이 뒤섞이면서 도착했을 때 정신이 혼미해져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 소속구단인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 DC 유나이티드는 “언론의 관심을 이해하지만, 구단 내부에서 조지할 루니 개인의 일이라며 자세한 언급을 삼갔다. /연합뉴스



“400골, 1골 남았다”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오른쪽)가 6일(현지시간) 스페인 헤타페의 콜리세움 알폰소 페레스에서 열린 2018-2019 프리메라리가 18라운드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메시가 이날 개인 통산 399호 골을 터뜨린 바르셀로나는 2-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메시, 개인 통산 399골 ... 프리메라리가 득점 선두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개인 통산 399호 골을 터뜨린 FC바르셀로나가 5연승 행진으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선두를 질주했다. 바르셀로나는 7일 스페인 헤타페의 콜리세움 알폰소 페레스에서 열린 2018-2019시즌 프리메라리가 1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반 20분 메시의 선제골과 39분 루이스 수아레스의 추가 골에 힘입어 한 골을 만회한 헤타페를 2-1로 물리쳤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리그 5연승 행진으로 시즌 12승 4무 2패(승점 40)를 기록해 2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승점 35)를 제치고 선두를 굳게 지켰다. 선제골을 넣은 메시는 2005년 이후 바르셀로나에서 14년간 뛰며 개인 통산 399호 골을 기록해 400골 달성에 한 걸음을 남겨뒀다. 메시는 또 리그 16호 골로 프리메라리가 득점 부

문 선두를 달렸다. 바르셀로나는 수아레스를 원톱에 세우고 메시와 우스만 데벨레를 좌우 측면에 배치해 헤타페를 공략했다. 선제골은 메시의 발끝에서 나왔다. 메시는 전반 20분 슈팅이 상대 골키퍼 다리를 맞고 나오자 달려들며 왼발로 마무리해 헤타페의 골문을 열었다.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바르셀로나는 전반 39분 수아레스가 추가 골을 뽑았다. 수아레스는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강한 오른발 발리슛으로 헤타페의 골망을 흔들었다.

0-2로 끌려가던 헤타페는 하이에마 마타가 43분 한 골을 만회했지만, 동점 골 사냥에는 실패했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홈경기에서 두 골을 내주며 0-2로 패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4경기 연속 무패(3승 1무) 행진이 중단되면서 시즌 9승 3무 6패(승점 30점)를 기록해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연합뉴스